

'21년 글로벌창업생태계보고서를 통해 본 투자트렌드 변화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최현희 (choikoex@kdb.co.kr)

- ◆ 미국의 스타트업 정책자문회사 스타트업지놈(Startup Genome)은 지난 9월 22일 '글로벌창업생태계보고서(GSER*) 2021'을 발표
- ◆ 보고서에 따르면, 최근 글로벌 창업생태계에서 투자금액 증가, 유니콘 급증과 유니콘 배출도시의 확대, 북미 외 지역에 대한 투자 증가, Deep Tech 분야의 빠른 성장 등의 변화가 나타남

* GSER(Global Startup Ecosystem Report) 보고서는 세계 각국의 도시별 창업생태계 경쟁력을 평가하여 순위를 발표하는 보고서로, 전세계 스타트업 임원 1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됨. '12년부터 매년 발표되고 있으며, 금년도 조사 대상은 100개국 275개 도시임

□ 최근 글로벌 창업생태계의 변화로 투자금액 증가, 유니콘 증가, 북미 외 지역에 대한 투자 증가, Deep Tech 분야의 빠른 성장 등을 들 수 있음

-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창업생태계의 변화를 분석하면서, '21년을 성장과 생산성 증가가 두드러졌던 한해로 평가함

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창업생태계의 주요 변화

구분	내용
벤처투자 증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글로벌 벤처투자 규모 - '20년 상반기 U\$1,480억달러 → '21년 상반기 U\$2,880억달러 (95% ↑)
유니콘 증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유니콘 개수 : '20.10월~'21.6월 동안 43% 증가 • 유니콘 배출지역이 글로벌 허브도시 중심에서 새로운 지역으로 확대
북미 외 지역에 대한 투자 증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미국에 대한 투자비중 감소 : '04년 84% → '20년 51% • 아시아, 라틴아메리카,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 증가
Deep Tech 분야의 빠른 성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산업의 디지털화가 코로나19로 가속화 • Deep Tech 분야에 대한 투자 증가
정부지원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스타트업 창업 및 폐업 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한 규제완화 조치 •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거액의 국가예산 배정, 벤처펀드 결성

자료 : Startup Genome('21.9), "Global Startup Ecosystem Report 2021", KDB미래전략연구소 재구성

□ 코로나19로 급감했던 투자는 이전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회복

- 글로벌 벤처투자는 코로나19 직후 규모와 건수 모두 급감하였으나*, 최근에는 회복수준을 넘어서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
 - * '20.1분기 글로벌 벤처투자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17% 감소, 투자 건수는 5% 감소(자료 : Crunchbase)
 - Crunchbase에 따르면, '21년 상반기 글로벌 벤처투자 규모는 U\$2,880억달러로 '20년 상반기 대비 95%, '20년 하반기 대비 61% 증가하였으며, 이 수치는 반기 투자규모로 사상 최대규모임*
 - * 글로벌 벤처투자규모 : '20.상반기 U\$1,480억달러 → '20.하반기 U\$1,790억달러 → '21.상반기 U\$2,880억달러

□ 코로나19 이후 유니콘 수가 급증하고, 유니콘 배출도시가 확대

- 유니콘이 중요시되는 이유는 창업생태계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지표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,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유니콘 수가 급증하고*, 유니콘 배출지역이 글로벌 허브도시 중심에서 새로운 지역으로 확대됨**
 - * '21.8월 현재 전세계 유니콘 수는 800개를 넘어섰으며(자료 : CB Insight), 유니콘 수는 '20.10월에서 '21.6월 동안 43% 증가함(자료 : Crunchbase)
 - ** 유니콘을 1개 이상 배출한 도시 수 : '19년 140개 → '20년 155개 → '21년 170개(자료 : Dealroom)
 - 유니콘 중 미국회사의 비중이 여전히 지배적이지만, '21년 상반기 동안 중국, 캐나다, 독일, 이스라엘, 영국, 프랑스에서 7-10개의 유니콘이 배출됨

□ 과거 북미지역에 편중되었던 투자가 아시아, 라틴아메리카, 아프리카 등 다른 지역으로 확산

- 글로벌 창업생태계의 펀딩규모와 회수가치(Exit)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, 미국에 대한 투자비중은 점차 감소하고*, 다른 지역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임
 - * 글로벌 벤처투자금액 중 미국회사에 대한 투자 비중 : '04년 84% → '20년 51%(자료 : NVCA)
 - 라틴아메리카의 경우, '21년 상반기 투자규모(U\$60억달러)가 전년도 연간투자금액 대비 51% 증가(자료 : LAVCA)
 - 아프리카의 경우, '21년 중 U\$28억달러가 투자되었고, '25년까지 U\$100억달러 이상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(자료 : AfricArena)
 - 중국의 경우, '21.1월~5월 동안 U\$370억달러가 투자되었고(자료 : GlobalData), 인도에는 '21.상반기 U\$121억달러가 투자됨*(자료 : Venture Intelligence)
 - * 아시아 지역의 경우 중국과 인도에 대한 투자가 전체 투자금액의 약 2/3을 차지함

- 이러한 현상은 스타트업 창업과 투자유치에 있어 물리적 제약에 따른 한계가 줄어들고*, 각국의 적극적인 스타트업 지원정책이 이어지며 지역간 창업 생태계의 편차가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

* 코로나19로 원격근무 환경 등 디지털 인프라 도입이 가속화되며 물리적인 제약의 한계가 급감

□ Deep Tech* 분야가 빠르게 성장 중

* 보고서는 AI & 빅데이터, 블록체인, 첨단제조 & 로보틱스, Agtech & New Food를 Deep Tech 섹터로 분류함

- Deep Tech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, Deep Tech 분야는 '15년 이후 이루어진 Tech 투자금액의 30%를 차지함
- AI & 빅데이터 스타트업에 대한 초기투자(시리즈A 딜)는 지난 5년간 98% 증가했으며, 글로벌 스타트업 가운데 AI & 빅데이터 분야의 비중이 27%를 차지
- Agtech & New Food, 블록체인, 첨단제조 & 로보틱스 스타트업에 대한 초기투자는 지난 5년간 각각 128%, 121%, 109% 증가함

Deep Tech 분야별 투자현황

	과거 5년간 시리즈A 딜 증가율	과거 5년간 Exit 가치 증가율	글로벌 스타트업 중 차지하는 비중
Agtech & New Food	128%	△14%	2%
블록체인	121%	52%	10%
첨단제조 & 로보틱스	109%	61%	10%
AI & 빅데이터	98%	93%	27%

자료 : Startup Genome('21.9), "Global Startup Ecosystem Report 2021"

- 코로나19는 섹터별 투자동향에도 영향을 미쳤는데, 게임, 에듀테크(EduTech) 섹터의 경우 과거 투자감소 추세에서 벗어나 초기투자가 증가하였고, 성숙단계로 분류되었던 핀테크 섹터도 초기투자가 증가함
- 이러한 변화는 재택근무 등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

□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 기조가 더욱 강화

-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취약해진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각국의 스타트업 지원 기조가 더욱 강화된 것으로 분석함
- 다수의 국가에서 창업 및 폐업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한 규제완화 계획을 밝혔고*, 거액의 예산배정과 벤처펀드 결성이 이루어짐
- * 영국 정부는 하루 만에 창업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포함한 규제완화 계획을 밝혔고, 스페인은 규제완화 등 50가지 조치를 포함한 향후 10년 계획을 밝혔음

□ 글로벌 창업생태계의 변화는 국내 스타트업에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

- 코로나19로 촉발된 변화로 인해 스타트업 운영과 투자유치에 있어 물리적 제약의 한계가 줄어들면서 투자지역이 확대되고, 창업생태계의 지역간 편차가 감소하는 현상은 국내 스타트업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
- 글로벌 창업생태계의 변화와 국내 창업생태계의 경쟁력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스타트업 지원방안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

<참고> '21년 글로벌 창업생태계 순위

- 글로벌 창업생태계 Top 5는 전년과 비교하여 순위 변동이 없었으며, 아시아 지역은 Top 30 내에 9개 도시*가 포함되었고, 서울은 전년 대비 4단계 상승한 16위를 차지

* 베이징(4위), 상하이(8위), 도쿄(9위), 서울(16위), 싱가포르(17위), 선전(19위), 벵갈루루(23위), 시드니(24위), 항저우(25위)

- 서울의 창업생태계 가치(Ecosystem Value)는 54조원으로 평가

'21년 글로벌 30대 창업생태계

순위	도시	순위	도시	순위	도시
1	실리콘밸리 (-)	11	워싱턴DC (-)	21	샌디에고 (-)
2	뉴욕 (-)	12	파리 (↑1)	22	베를린 (↓6)
3	런던 (-)	13	암스테르담 (↓1)	23	벵갈루루 (↑3)
4	베이징 (-)	14	토론토-워털루 (↑4)	24	시드니 (↑3)
5	보스톤 (-)	15	시카고 (↓1)	25	항저우 (↑3)
6	LA (-)	16	서울 (↑4)	26	애틀랜타 (↓3)
7	텔아비브 (↓1)	17	스톡홀름 (↓7)	27	덴버 (↓3)
8	상하이 (-)		싱가포르 (-)	28	필라델피아 (신규진입)
9	도쿄 (↑6)	19	선전 (↓3)	29	밴쿠버 (↓4)
10	시애틀 (↓1)	20	오스틴 (↓1)	30	솔트레이크 (신규진입)

자료 : Startup Genome('21.9), "Global Startup Ecosystem Report 2021"
괄호 안은 전년 대비 순위 변동